

2018년 11월 13일, 제주시 외도2동 월대마을회관, 이효순 조사.

강옥자(여, 1941년생, 제주시 외도2동)

-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서 태어나서 결혼 후 외도동 월대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하늘과 땅이 붙어 버린 것처럼 큰 그슨새라는 귀신 아래로는 소도 무서워서 지나지 못하는데 큰소리치던 할아버지가 넘었다가 일년동안 아파서 고생했다.

[제보자] 그슨새가 나가지고.

으스스한 골목에 가민 그게 하늘광 땅에 붙은 게 잇어그네 그덜 지나가지 못헛젠 험니다. 귀신인디. 그게 나가지고 잇이민 소도 못 넘어갔다고.

소도 그걸 보면 돌아섰다고. 그런 얘기 들어난 적 잇수다. 그게 그슨새렌. 소는 뭐든지 다 지나가는데 소도 그건 무서워서 못 넘어갔다고.

우리 할아버지가 그까짓 걸 못 막느냐 해서 넘엇답니다. 넘엇다가 일 년 동안을 고생했다고 험니다. 아파서. 일 년 동안을 아팠어.

그게 어디 낫냐 허문 요 다리 잇는 쪽에 옛날은 고바위 진 길이 잇엇우다. 그디서 경허영 고생을 많이 허고렌. 우리 할아버지.

“너네들 절대 밤에는 나가지 말라. 무서운 뭐가 잇다.”

허니까 거기는 어둑 허문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런 예가 잇엇우다.

- 핵심어: 그슨새(귀신), 소, 할아버지, 밤, 하늘, 땅